

## 해남화원관광단지 조성공사 급피치

# 내년 해수욕장·골프장 문연다

### 착공 14년만에 공정률 67%... 올 1천억 투입

서남해안 해양레저관광의 거점으로 조성되고 있는 해남화원관광단지가 14년간의 공사끝에 내년에 해수욕장과 골프장 등이 부분 개장된다.

한국관광공사 서남지사는 "8월말 현재 공정률이 67%로 기반조성 사업을 2007년까지 모두 마치고 우선 내년 하반기 중에 해수욕장 등 일부 시설을 부분 개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부분 개장될 해수욕장은 화원

면 주광리와 하봉리 일대 1km의 해변가에 조성되며 인근에 해수욕장과 씨월드, 머드 체험장 등이 조성된다.

또 관광공사가 직영하는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도 내년에 부분 개장하며 플라워 파크와 마리아 시설 등 국내외 관광객을 겨냥한 핵심 사업들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관광공사 측은 내년 부분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올 한해내 1천억원을 투자하

는 등 화원관광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화원관광단지는 오는 2012년까지 골프장과 마리아 요트장, 4개의 호텔과 유스호텔, 별장촌 등이 들어서는 체류형 관광단지로 조성된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화원관광단지가 착공 14년이 되도록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내년 부분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투자재원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 /지역 단신/

#### 강진 차 제조명인 이한영씨 생가 복원

강진군이 '다산(茶禪)'으로 불리는 차 제조명인 이한영(1868~1956) 선생 현상사업에 나선다.

강진군은 오는 2007년까지 15억원을 들여 한국 최초 상표를 붙인 차를 생산, 판매한 차 제조명인 이한영 선생의 생가 주변 3천여㎡를 매입한 뒤 생가복원과 각종 유품 및 제다(製茶)기구 등을 전시할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 관광객들이 직접 차를 만들어 볼 수 있는 다도 체험장과 가공·전시 판매장 등도 신축하는 등 관광자원화 하기로 했다.

이한영 선생은 100여년전 강진 월출산 자락에서 백운옥관차와 금릉월산차 등 상표를 부착한 녹차를 생산, 일제 강점기에 사라져 가던 국산차의 전통과 명맥을 지켜 온 다산인(茶人).

그가 개발한 상표 고무인과 포장지 등은 현재 후손에 의해 보존되고 있으며 작업장 건물도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선생은 월출산 일대에서 자란 야생녹차를 채취, 녹차를 생산했으며 옛 지명인 백운동과 옥관산 이름을 따 이른바 '브랜드'를 만들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 우수 쌀 전업농 수범사례 발표

한국농촌공사 전남도본부(본부장 장치원)는 12일 6층 대회의실에서 농업인단체 임원, 쌀 전업농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쌀 전업농 수범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수범사례 발표회에서는 홍일주(51·화순)씨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원태준(36·담양)씨와 정운상(39·장흥)씨가 우수상과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화순군 홍일주씨는 1980년도 귀농시 300평에 불과한 농지를 영농 규모화사업으로 농지를 지원받아 현재는 5만 평을 경작하는 쌀 전업농이다. 장치원 본부장은 "90년부터 6ha이상의 경영규모를 가진 쌀 전업농 7만호 육성을 위해 4조8천여원의 사업비를 농업인에게 지원했다"며 "앞으로 3조2천여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 농촌공사 합평지사 새청사 짓는다

한국농촌공사 합평지사(지사장 양상기)는 내년 9월 완공예정인 총 공사비 35억여원을 들여 2천여평의 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청사를 신축한다.

한편 농촌공사 합평지사는 12일 현 청사에서 1km 떨어진 곤충연구소 별관(구 농업기술센터)로 청사를 옮겼다.

/합평=박영진기자 pyj4079@



#### 보성녹차 한과 제수용품 인기

추석을 앞두고 보성군 운치면 '보성녹차개발음식'에서 제수용품으로 사용될 녹차 한과 만들기에 한창이다.

/보성=안규일기자 gjahn@

#### 운영비는 '쥐꼬리'만큼 주면서...

## '주민자치위' 활성화 되겠다

#### 광산구 지원금 턱없이 낮아 불만

지난 2000년부터 광주시 광산구 산하 일선 동사무소에 조직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비 지원금이 타 구청에 비해 턱없이 적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광산구와 일선 동사무소에 따르면 구는 주민 자치위원회의 운영비로 매월 14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북구의 50만원과 서구의 30만원에 비해 턱없이 적은 액수다.

이때문에 농촌지역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일부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사비를 내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동사무소의 관계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운영비지원금을 늘리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각계인사들로 구성돼 지역별로 운영비지원금을 늘리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각계인사들로 구성돼 지역별로 활성화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일부 동에서는 사비를 사용하면서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 정중해 보성군수 被訴

#### 허승완 前군수측 5·31선거 관련 고발

정중해 보성군수가 지난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상대 후보였던 허승완 전 군수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13일 보성경찰서에 따르면 허 전 군수의 측근은 "5·31 지방선거에서 허 전 군수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 군수를 고발해 경찰이 진위여부를 가리고 있다는 것.

정 군수는 이에 대해 "필요하다면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운동원들이 군에 떠돌던 소문을 상대방 운동원들에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했을 뿐 전적으로 활용된 적은 없다"며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 오히려 자제를 했으면 했다"며 비방한 사실은 없고 유인물에 대해서도 내용조차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보성=안규일기자 gjahn@

## '고교생 방과후 학습'郡이 나선다

#### 영암군, 내년 60명 선발

#### 국·영·수 등 수준별 학습

영암군이 내년부터 방과후 고교생 학습 지원에 나선다.

영암군은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50~60명을 선발, 광주 유명 강사 초빙 방과후 학습을 실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농촌 학생의 경우 방과후 유명강사에 의한 학습지도 받을 기회가 적고 기회가 있더라도 과중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

담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인재 육성 차원에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영암군립도서관에서 실시될 방과후 학습은 수준별로 반을 편성해 국어, 영어, 수학, 논술 과목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연도별로 대상 학년이 확대된다.

한편 영암군은 중학교를 졸업해 군내 고등학교로 진학할 경우 5% 이내 성적 우수자는 300만 원, 10%까지는 2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영암=김현남기자 hnkim@

## 영산강·황룡강 일대 자전거도로 만든다

광주 영산강과 황룡강 일대에 길이 26km, 폭 2~3m의 자전거 도로가 개설된다.

자전거 도로개설에는 총 47억원의 구비와 국비가 투입되며 광산구 남부 지역을 거쳐 어등산과 왕동저수지를 비롯한 자연 관광지, 송산유원지등과도 연계된다.

시절면에서는 도로 곳곳에 벤치(16개소), 간이화장실(1개소), 음수대(2개소)와 자전거 주차장, 가로등(138개소),

자전거 가드레일, 이정표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도로는 지역과 코스 길이에 따라 어등산 코스(약 16km), 하남·운남코스(약 16km), 송정·광주공항 코스(약 15km) 등 소순환 코스 3개와 이틀 3코스를 아우르는 대순환 코스인 영산강·황룡강 코스(약 33km)로 구성된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 누굴위한 '발목잡기'인가

지난 8월 말 박병중 고홍군수는 순천지청에서 허부종일 검찰조사를 받아야 했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전 군수가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군수를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 대성수

(사회2부기자·고홍)

그런데 사법당국이 이 고발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소문이 나돌자마자 또 다시 비슷한 내용으로 박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미 검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박군수의 입장에서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박군수는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은 채 검찰조사에 응하고 있다. 만만치 않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여의치 않았지만, 자신의 결백을 믿는 소신 때문이라고 주위사

람들은 전한다.

박군수는 취임이후 줄곧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생활현장과 중앙부처를 오가며 의욕적인 민선 4기 군정을 펴고 있다. 이러한 때에 선거 후유증으로 사법당국의 조사에 시달린다면 민선 군수직을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초심'을 유지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전임 군수는 중앙부처에서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필요한 예산을 끌어오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곡성군처럼 전·현직 군수가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해 지역현안과 예산을 챙기는 '아름다운 동행'이 고훈에서도 이어지는 것도 여의치 않았지만, 자신의 결백을 믿는 소신 때문이라고 주위사

/dss@kwangju.co.kr

**매일밤 8시부터 쏠! 쏠! 쏠! 애들은가라!!**

**설운도 9월 14, 15일**

**부킹전국 100%**

광주 상무나이트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